

‘2026 전남·광주 친환경농업인 한마음대회’ 여수서 개최

전남·광주 친환경농업인 700여 명 참여…교류·화합의 장 마련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오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 디지털갤러리에서 ‘2026 전남·광주 친환경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협회(회장 조광철)가 주최하고 (사)여수시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상용)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섬과 바다를 품고,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전남·광주 친환경농업인과 가족,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남과 광주의 친환경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회로, 양 지역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하며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11일 첫날에는 오후 4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업 발전 유공자 표창, 친환경농산물 인증식, 휴대 체험 퍼포먼스, 노래자랑, 즉석

퀴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전시 공간도 마련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한다.

또한 전남친환경농업협회는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친환경농산물을 기증해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주요 내빈이 참여하는 휴대 체험 퍼포먼스에서는 농업의 전통과 농업인의 노고를 되새기고,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2026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여수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전남과 광주의 친환경농업인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며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

들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의 매력도 함께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지역별 친환경농산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 교통과 안전 관리에도 힘써 참가자들이 불편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친환경농업과 지역 관광을 연계해 여수의 농업·관광 자원을 함께 홍보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이유빈 기자



2026 전남·광주 친환경농업인 한마음 대회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이유빈 기자

광양시, ‘광양대전환! 공감 토크’ … 시민과 지역경제 해법 모색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8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광양대전환! 공감 토크」를 열고, 시민 24명과 ‘광양에서 돈이 돌고, 시민의 삶이 나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를 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공감토크는 민선9기 5대 대전환 전략 중 하나인 ‘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시장과 점심을 함께하며 지역업체와 소상공인, 창업, 관광, 일자리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경제 문제와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눴다.

특히 광양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고 시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먼저 지역업체와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공사·용역 등에 지

역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광양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가 전 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창업 분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서 사업화·판로·홍보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관광 분야에서도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를 확대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시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블루베리 육성 결실, 곡성블루베리 공선출하회 ‘전국 최우수상’ 받아

곡성군의 지속적인 블루베리 육성 정책과 농업인·농협의 협력이 결실을 맺으며 곡성 블루베리의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곡성군 블루베리공선출하회는 지난 2일 2026년 농협 생산자조직 연도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생산자 조직화와 공동선별, 품질관리, 판로 확대 등 체계적인 공선출하를 통해 곡성 블루베리의 품질과 유통 경쟁력을 높여온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군은 소비 성향 변화에 따른 블루베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2월에서 9월까지의 블루베리 장기 생과 생산단지 조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블루베리를 지역의 전략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2017

년 20ha에서 2026년 42ha로, 출하량은 110톤에서 300톤으로, 생산액은 26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속적인 재배 기술 보급과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블루베리가 곡성의 대표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특히, 곡성군은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 지자체 단위 블루베리 공선출하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 설명회와 협의회 35회를 개최해 475명의 농업인이 참여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선출하 협의회 30회를 운영하며 농업인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곡성군은 생산자 조직화와 공동선별을 통해 블루베리의 품질과 판로 경쟁력을 높여왔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섬진강에 어린 다슬기 80만여 마리 방류

전남·광주 구례군은 섬진강 다슬기 자원 회복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린 다슬기 8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 해양수산과학원 서부지부 민물고기 연구소, 섬진강어류생태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무분별한 채취와 하천 환경 변화로 감소한 다슬기 개체 수를 늘리고 섬진강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수면 어업인의 생산 기반 확대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류는 섬진강 수계 내 2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구례읍 병방마을 인근에는 각고 1cm 이상의 어린 다슬기 50만 마리를, 간전면 양천리 어류생태관 앞 일원에는 각고 0.7cm 이상의 우랑 다슬기 30만8천642마리를 각

순천, 순천시립극단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선보여

순천시(시장 순홍모)는 순천시립극단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안데르센의 고전 동화 ‘미운오리새끼’를 각색한 이번 작품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해, 공연 관람과 예술교육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단체관람 중심으로, 19일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60분간 진행되며, 관람료는 전석 6,000원이고 3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순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예매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